

아시아나항공 매각협상 원점으로...속타는 금호그룹

채권단-HDC현대산업개발 계약6개월 만에 매각 재협상 금호고속 1300억 상환 지연...코로나 사태로 경영난 지속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놓고 채권단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재협상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매각대금 완납이 미뤄지면서 그룹의 재무 정상화에 나서려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속은 타 들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아시아나항공 채권단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조건에 대한 재협상에 착수한다.

당초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27일 금호산업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항공운계를 강타하자 인수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당시 아시아나항공 인수가격은 총 2조 5000억원이고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아시

아나항공 지분(구주) 30.77%에 대해 3228억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매각계약을 체결한지 6개월이 지나도 매각작업은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금호그룹의 위기상황은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금호그룹은 아시아나항공 매각대금인 3228억원으로 그룹의 재무상황을 정상화 도에 올리면서 그룹 재건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당장 금호산업의 대주주인 금호고속이 산업은행에서 빌린 1300억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

금호고속은 금호산업 지분을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이 돈을 빌렸지만 아시아나항공 매각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 차입금을 상환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산업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금호고속이 보유한 금호산업 지분 45%를 담보로



잡은 상황이라 차입금을 갚지 못하면 금호산업이 채권단의 수중에 들어갈 수도 있다. 금호고속은 지금 금호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지만 금호고속이 1300억원을 갚을 타개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더욱이 채권단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재협상을 진행하더라도 금호그룹 입장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협상결과를 기대하기

는 힘들다. 코로나19로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까닭에 현대산업개발은 채권단과 재협상을 통해 당초 매각가인 2조5000억원에서 큰 폭으로 금액을 깎으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렇게 될 경우 금호그룹이 받게 되는 돈 역시 당초 받기로 했던 3228억원에서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금호산업과 함께 그룹의 중심축으로 남게 되는 금호고속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금호고속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재까지 임원 임금 30% 삭감과 전 직원 순환 휴직 등을 실행하고 있다.

금호고속은 이를 통해 위기상황을 버텨내고 있지만 코로나19 국면이 조만간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는 높이고 있다.

금호그룹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작업이 하루빨리 마무리돼 직면한 위기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길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새 주인 찾기도 어려운 쌍용차...깊어지는 정부 고심

고용 불안 우려 커지지만 대주주마저 투자 철회로 지원 명분 ↓

쌍용자동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새 투자자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경영권 포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경영난에 빠진 쌍용차의 앞날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 지원 없이는 쌍용차의 회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정부와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에 개입한 정부가 쌍용차의 경영 위기를 외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최대 주주마저 신규 투자 의사를 철회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설 명분이 부족하고,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만으로는 쌍용차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걸림돌로 지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과연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인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쌍용차는 새 투자자가 필요하다. 투자를 확보할 수 있는지 회사와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마힌드라가 수익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업은 파트너십을 모색하거나 접을 수 있다는 뜻마저 밝히면서 쌍용차 철수 작업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마힌드라는 광범위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손실키 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앞서 마힌드라는 지난 4월 쌍용차에 대한 2300억원 투자 계획을 철회할 당시 새 투자자를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날에도 쌍용차에 더 이상 투자를 하



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쌍용차 지분 약 75%를 보유한 마힌드라는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가 쌍용차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2300억원을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위기에 놓이자 신규 투자 의사를 철회하고, 대신 긴급 운영 자금 명목으로 400억원만 투입했다.

당시 쌍용차는 '400억원 지원은 철수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엔카 사장의 발언으로 상황이 또 달라졌다.

마힌드라의 신규 투자 철회 이후 쌍용차도 각종 자구노력을 시행했다. 서울 구로구 서비스센터와 부산 물류센터 부지 등 비핵심자산 매각, 임직원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2000억원 이상을 확보했다. 문제는 이 정도로는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 여파로 쌍용차에 대한 새 투자자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마힌드라의 쌍용차 경영권 포기 검토 발언이 한국 정부를 향한 압박성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고용이나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무시할 수 없어서다. 쌍용차가 흔들리면 직원 5000여 명과 1~3차 협력사를 포함한 수만 명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다.

앞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9일 "쌍용차를 재무적인 관점에서만 볼 것인지 다른 파급효과까지 같이 고려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쌍용차는 당장 오는 7월에만 산업은행에 900억원의 대출을 갚아야 한다. 산업은행이 일부 대출금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해줄 가능성이 거론되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일시적인 자금 지원으로 쌍용차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단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추가적인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경영난이 지속될 수 있어서다. 쌍용차의 감사업체인 삼정회계법인도 쌍용차의 존속 능력에 의문표를 달았다. 쌍용차는 1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경영 위기 악화에 따른 쌍용차의 고용 불안은 결국 친노동정책을 펴는 현 정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쌍용차의 현 경쟁력을 고려할 때 향후 시장에서 생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진짜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우나 기자

5월 수출 전년비 23.6% 감소...코로나 충격 지속

관세청 5월 수출입현황 확정치 발표...무역수지 1개월만에 흑자

4월에 이어 5월에도 수출 감소세가 확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피해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수출액(확정치)은 34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6% 감소했다. 일평균 수출도 18.3% 감소했다.

수입은 21.0% 감소한 345억 달러로 무역역차 4억 달러를 기록해 1개월 만에 흑자 전환됐다.

5월 수출액 감소는 코로나19 영향, 조업일수 감소(-1.5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수출품목을 보면 석유제품(-67.7%), 자동차 부품(-66.4%), 승용차(-53.1%), 가전제품(-39.2%), 무선통신기기(-15.2%) 순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반도체(6.5%), 선박(37.0%) 등은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 증가는 중국(33.0%), 미국(30.8%), 대만(36.2%) 등으로의 수출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2.4%), 미국(-29.2%), EU(-22.5%), 베트남(-20.1%),

일본(-29.0%), 중동(-25.4%) 등으로의 수출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 주요 품목 중 제조용 장비(132.1%), 승용차(21.9%), 컴퓨터(56.4%)는 증가한 반면 원유(-68.4%), 기계류(-14.0%), 가전제품(-16.3%)은 감소했다. 원유 수입단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전년 동월 대비 66.3% 하락했다.

1월부터 5월까지 수출 감소폭을 보면 1월 6.6% → 2월 3.5% → 3월 1.6% → 4월 25.5% → 5월 23.6%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급격한 수출 위축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우려됐다. 그러나 3월 수출은 당초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하는 등 전년 수준에 근접하며 선방했다.

그러나 4월 수출마저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전년 동기 대비 25.1%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가급락 속에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가전제품이 반토막나면서 99개월만에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롯데, 조각·소과종 과일 '인기'...부담없고 편리

'애플·망고 수박' 눈길...소포장 과일 매년 매출 ↑



롯데쇼핑은 최근 1~2인 소형가구의 '니즈'(Needs)를 반영해, 잘라서 나눈 '조각 과일'과 일반 과일보다 크기가 작은 '소과종 과일' 등 부담 없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매우 큰 사이즈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수박을 자른 '조각 수박'을 기획해 판매하고 있다. 수박 조각 모양의 투명한 전용 용기를 사용해 내부 확인이 가능하며, 이동과 보관이 쉽다. 냉장 상태로 판매해 시원하게 바로 취식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절반, 4분의1, 8분의1 사이즈 등 다양한 규격을 선보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여름철 휴가지 등 외부에서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소과종 상품도 인기다.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소과종의

대표주자인 '애플 수박'은 올해 5월 매출이 전년 대비 평균 10%이상 상승했다. '망고 수박'으로 불리는 '블랙 보스 수박' 역시 소가족에게 적합한 수박이다. 3~4kg내외 무게에 걸은 일반 수박보다 진한 녹색이며 과육은 노란색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롯데백화점도 식품관에서 '한끼밥상' 과일 코너를 운영하며 소포장 과일 판매에 힘을 쏟고 있다. 한끼밥상은 롯데백화점이 한우, 과일 등 신선식품을 한끼 분량으로 포장해 선보이는 코너다. 롯데백화점 본점의 경우 한끼밥상의 소포장 과일 상품 출시 이후 일 평균 이용자가 200명 정도이며 매년 꾸준히 늘어남 정도라고 인기다. 수박 뿐 아니라 멜론·파파야·용과 등 구색(具色)도 확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1% 인상하면 소비자물가지수 0.07% ↑”

한경연,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 가격 등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송한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0개 연도의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교수는 "분석결과를 2017년 상황에 적용하면, 당시 최저임금 인상(7.3%) 영향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0.5%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결과 전체 근로자 중 다음연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늘수록 생산자물가와 주요 외식비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급여 수준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p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89%,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7%~0.8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올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근로자 비율이 1%p가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1.68%, 주요 외식비 가격은 0.30%~1.23% 상승했다. △당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p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77%,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1%~0.98% 상승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연평균 주요 외식비 가격 인상액과 기여율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냉면 6.3~21.9원(7.0%~24.3%) △비빔밥 15.0~57.0원(10.4%~39.6%) △삼겹살 8.9~36.7원(9.6%~39.6%) △삼겹살 32.7~93.0원(13.1%~37.4%) 등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물가상승과 일자리 상실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은 완만하게 상승시키되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해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